

<< KOREAN TRANSLATION >>

What Can Take Away My Sin? 무엇이 내 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This morning, I want to ask and attempt to answer an important question. It's the question: What can take away my sin? For many people in our culture, it seems like an entirely irrelevant question. Sin? What's sin? 'That's so out of date and irrelevant,' they say.

I mean, if we are talking about wrongdoing - serious wrongdoing - let's use the right word! Let's talk about crime, assault, robbery, and murder in the first degree. Sin is so yesterday, so out-of touch. It really belongs in the age of dinosaurs. Or does it??

Well, not according to a past president of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r Karl Menninger. In the late 1960s he wrote a book called, 'Whatever became of Sin?' Essentially, it was his personal lament that the notion of sin was passing from our culture.

오늘 아침, 저는 중요한 질문을 물음과 동시에 답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 내 죄를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문화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는 전혀 무관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죄? 죄가 뭐야? '그건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고, 우리에게 상관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 - 아주 심각한 잘못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라면, 폭행, 강도, 살인과 같은 1급 범죄와 같은 것에 대해 얘기할 뿐, 죄는 옛날 것이며,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공룡 시대의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글쎄요, 과거 미국 정신의학 협회 회장 Dr. Karl Menninger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그는 1960년도 후반에 "Whatever became of Sin?" 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죄의 개념이 우리 문화에서 빠져 나감에 대한 개인적 한탄 이었습니다.

---

He said that from his experience as a practising psychiatrist, we need the category of sin to accurately describe what is fundamentally wrong with us. 'Without sin' he said, 'so much of human behaviour is misunderstood and poor defined' Essentially, what he meant was this: when we remove the concepts of God and sin from the picture, there is so much in our lives that can't be explained or dealt with effectively. In other words, when words are eliminated from your vocabulary, we become less able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to us and less able to cope. Why? Because we can't satisfactorily explain what is happening to us, and neither can we understand what has gone wrong in our lives. Failing to identify sin as our fundamental problem only makes it harder to deal with.

그는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묘사하려면, 죄의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 인간의 대한 행실은 잘못 이해되고, 올바르게 않게 정의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가 의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의 개념을 그림에서 제거할 때, 우리 삶은 제대로 설명되어지지 못하거나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인즉, 이 단어들(하나님과 죄)을 우리의 단어장에서 제거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일까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만족스럽게 설명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삶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 하면, 이 문제를 다루기 더 어려워집니다.

For example, if we refuse to use the word 'sin', do you realise that you are admitting that God is utterly irrelevant to your condition as a human being?

'Well, Peter' you ask me 'why is that so?' Well, the answer is really very simple. 'Sin' means transgressing the will of God. It means committing an offence against God the creator, breaking his law, opposing his will and failing to acknowledge that we, as created beings, are bound to do so. It is ultimately to reject God's purpose for us and to live in the way that we see fit. Crime is different. It refers to an offence against another person or against society in general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거부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으로서 있는 현 상황과 무관하다고 인정해 버리는 것임을 알고 계시나요?

당신은 저에게 "글쎄요 피터씨, 왜 그런 거죠?"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죄'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고, 그의 법을 어기고, 그의 뜻에 반대하며, 우리가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는 이와 다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나 사회에 대한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Do you realise that governments can declare various actions as a crime that may or may not sin? For example, it is possible for the state to declare something to be a crime that may, in fact, be perfectly legitimate before God.

Apparently, Victorian police thought a crime had been committed when an elderly man sat on the seat in a public place in Melbourne within 100m of a medical practice that conducts abortions. He didn't approach anyone; he just sat there with his head bowed praying to God and was arrested. Had he sinned? No, but the police thought he had committed a crime.

Do you see the difference? Sin relates to an offence against God. And only when we understand this can we deal with it.

And it is this idea of sin as an offence against God that takes us to the heart of the gospel. 'Why is this so?' you ask. Well, it explains to us why Jesus came into the world and why he had to die upon the cross. In other words, we can on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Christian gospel as 'good news' when we fully understand the nature of sin.

여러분은, 정부에서 '죄'가 아닌 것들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국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당한 것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멜번에서 한 노인이, 낙태 시술을 행하는 의료시설 반경 100미터 안, 공공시설에 앉아 있었을 때, 빅토리아 주 경찰은 이를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체포 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나 경찰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 간주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위법 행위인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 대한 위법 행위로 이해할 때, 이는 우리를 복음의 중심으로 인도 합니다. '왜 그런거죠?' 라고 당신이 물을 때, 이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했는지 설명해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때에, 이 기독교 복음의 의미를 '좋은 소식'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Now, this idea that we are sinners who deserve to die is taught throughout the Bible. Right from the beginning of Scripture, we are taught that if we're ever to be saved, it will only be because God has provided for a sacrificial lamb, which sheds its blood in death, in return for our lives.

God required such a lamb in the days of Adam and Eve. Scripture says,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But Abel brought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The Lord looked with favou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ur (Gen. 4:3-5). Abel was the one who brought the lamb, and only his offering was accepted: God required a sacrificial lamb.

이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대가로, 죽음 가운데 피 흘린 희생양을 마련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양을 요구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 4:3-5). 아벨이 어린 양을 가져온 자였으며, 그의 재물만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양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in salvation, which is solely by grace, God gives what God demands. So again and again through the history of redemption, God has always provided a lamb or another sacrificial animal to atone for the sin of his people.

He provided a Lamb for Abraham. Actually, He told Abraham to sacrifice his only son Isaac as a burnt offering on Mount Moriah. Isaac was certainly no fool because as they climbed the mountain, he realised they had neither a sacrificial lamb nor the means of fire. So he said to his father “Father, the fire and wood are here, but wher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Gen 22:7)

Issac knew what God required. Abraham knew it too and his response to God showed that he understood how sin is forgiven. By the sacrifice and shedding of the blood of the lamb.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요구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구속사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양이나 다른 희생 제물을 항상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은 희생양뿐만이 아니라, 불을 지필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음을 알고, 그의 아버지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 22: 7)

이삭은 하나님의 요구 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반응은, 죄가 어떻게 용서 되는지를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양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 된다는 사실을...

God's plan for the forgiveness of sin was also set forth in the worship of Israel. Every year God provided a lamb or similar sacrifice for Israel. On the Day of Atonement, the high priest would bring the animal into God's presence and sacrifice it as a sin offering for the people. God's instructions were clear: *"he shall slaughter the animal for the sin offering for the people and take its blood behind the curtain...he shall sprinkle it on the atonement cover and in front of it...in this way he will make atonement...because of the uncleanness and rebellion of Israel, whatever their sins have been."* Notice again how God made provision to the sin of His people: he required a sacrificial substitute to die for his people.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양이나 비슷한 희생 제물을 제공 하셨습니다. 속죄일에 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동물을 가져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동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어떤 해결책을 제정하셨는지 다시 주목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을 대속물을 요구 하셨습니다.

I think it's interesting that whether we're talking about atonement for just an individual, for a family or even for a nation, God always requires sacrifice, usually a lamb. Abel needed a lamb to atone for his sin, so did Abraham and Isaac, so did the families of Israel at the time of the Passover in Egypt, and so did the whole nation of Israel on the Day of Atonement. There's a clear progression here from the individual to the entire nation. All of them needed atonement for their sin.

ultimately, the prophet Isaiah looked forward to a man, whom he described as a 'man of sorrows', who would be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crushed for our iniquities, pour out his life unto death and would bear the sin of many (Isa 53:6)

It seems that his death, as the Lamb of God, would not only save the Israelites, but also people from all nations. That's why when John the Baptist saw Jesus coming, he said: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것이 개인을 위한, 한 가족을 위한 혹은 한 국가를 위한 속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희생제물, 보통은 어린양을 요구 하신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아벨은 그의 죄를 속죄할 양이 필요했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집트에 유월절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족들, 그리고 속죄의 날에 이스라엘 온 민족 또한 속죄할 양이 필요했습니다. 여기는 개인에서부터 모든 온 민족에게로 진행되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자들은 그들의 죄를 위한 속죄가 필요 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슬픔의 사람'이라고 묘사한, 한 사람을 고대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찢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며, 우리 무리의 죄악을 짊어지실 분을 (사 53:6)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의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God has been planning this all along, a perfect and unblemished individual who would die for the sins of the human race. This is the message of the Bible: anyone who wants to meet God must come on the basis of the sacrifice that God has provided. All the other lambs in the Old Testament prepared for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is is what John the Baptist understood when he said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it's also what Paul meant when he said: "Christ our Passover has been sacrificed for us."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을 완벽하고 흠 없는 한 개인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희생에 근거하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며,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전 5:7) 라고 말할 때, 이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Now that I have explained why the idea of sin is so important to us, let me mention another associated word, the word, judgment. Judgment or condemnation is the response of God toward sin. It's another word that we are not supposed to use in the age of political correctness.

However, the idea of divine judgment has to be taken seriously because history doesn't lie. It tells us of several divine judgments that the world has experienced because of sin.

The Bible says that a worldwide flood took place in the days of Noah that was a sign of God's judgment on sin. People at the time had been warned for many years that God would punish their sin, and it happened as Noah prophesied.

Likewise, God visited judgement upon the Egyptians during the days of Moses. And we know that the acts of disaster that came upon the land of Egypt were signs of judgment because those alive at the time had been warned well in advance of them happening.

This explains why the Bible points to the flood and the Passover in Egypt as divine warnings of a final day of judgment that God will bring upon the earth because of sin.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설명했으니, 이제 이와 연관된 또 다른 단어인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해 언급하려 합니다. 심판, 혹은 정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는 또한 정치적 정당성이(차별적 언어)라 하여 요즘 시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역사는 세상이 죄로 인해 받게 된, 몇 가지 신적 심판에 대해 알려 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전 세계적 홍수가 노아의 시대 때 일어났고,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수년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노아가 예언한대로 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받았기에, 이집트에 임한 재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가져오실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한 경고를 이 홍수와 이집트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However, there is one aspect of God's judgment on Egypt that I want to spend a few moments this morning, considering with you because of its significance for what it tells us about how God takes away our sin.

It concerns the death of all the firstborn Egyptian children on the night of the Passover. It was God's final and terrible act of judgement upon everyone who had failed to listen to the words of the prophet, Moses.

It was a very significant plague because the Israelites were told this plague would kill them as well unless they had a special immunity against it. You see, while all the previous plagues had left them unscathed, the truth was that they were no more righteous than the Egyptians. The Israelites themselves also deserved to die for their sin.

그러나 이집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한 면모에 대해서 좀 더 나눠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져가시는지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월절날 저녁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은 것에 관한 것 입니다. 이는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마지막이자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에 대해 특별한 면역이 없는 한 이 재앙이 그들 또한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전에 나타난 모든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이집트인들보다 더 의로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인들 또한 그들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Do you realise that whether we are believers or not, we are all sinners by nature? The Bible teaches us that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It also says that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It also tells us that we are all born this way. The Psalmist says 'In sin did my mother conceive me' (Psalm 51:5)

The very first Passover proved this fact by reminding the Israelites that they too would die in their sin like the Egyptians unless they were sheltered from God's wrath by painting the sacrificial lam's blood over the doors of their houses.

우리가 믿는 자이던 아니던 간에 우리 모두가 천성적으로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시편기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 51:5)라고 말씀합니다.

이 최초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어린양의 희생의 피를 자기 집 문 위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사실을 증명 했습니다.

The tenth and final plague that God brought upon Egypt was, in fact, a sign of God's judgment on all sin - both Egypt and Israel's. It was a reminder that all of them had sinned and all were destined to die in God's judgment, unless, of course,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was protecting them. Israel only survived that terrible night because every household had painted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over their doors.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열 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은, 진실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모두 죄를 지었으며,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을 운명 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밤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집 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 이었습니다.

Now the understanding that Christ is the Passover lamb who takes away our sin is not something we can figure out by ourselves. John the Baptist tells us that it is a matter of revelation. He tells us that there was a time when even he did not understand the identity and significance of Jesus Christ as our saviour from sin.

He tells us in John 1:31 that 'I myself did not know him...' In other words, although he was related to Jesus, he simply saw him as another member of his wider family. He didn't understand that he was the Son of God who had come as our Saviour and would bear our sins. This means that there was a stage in John's life when he was completely ignorant of Jesus' role as Messiah and Saviour. He simply thought of him as a relative and a carpenter. However, as they grew up together, he probably realised that Jesus was a man of unusual wisdom and godliness. But at this stage John thought of him as no more than a man.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해는 우리 스스로 알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는 “계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의 구세주라는 그분의 정체와 그 중요성에 대해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1:31절에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말인즉, 예수님과과는 연관된 자로, 그저 예수님을 큰 가족의 일원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요한의 생애에는, 메시아와 구원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때가 있었음을 의미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그의 친척으로 그리고 목수로서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자라면서,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남다른 지혜와 경건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요한은,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But then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in John's life. God revealed to him that Jesus was the longed-for Saviour of the world. He was the one who would bear our sins and take them away. He was, in fact, the person to whom Isaiah referred as the 'lamb led to the slaughter' (Isa 53:7). Jesus was the one tru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러나 요한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가 그들의 죄를 지고 가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사야가 언급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사 53:7) 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Now we learn in Matthew's Gospel that people find this truth about Jesus hard to understand. In fact, Jesus tells us that God actually hides this truth from the wise and learned who think

they know everything and revealed it instead to children. Therefore knowing Jesus Christ as the Saviour for our sin is a revelation from God.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우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진리를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지혜롭고 배운 자들로부터 숨기신다 말하며, 대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인 것입니다.

John confirms this truth in verse 32 because he says ' I would not have known him, excep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se with water told me, ' The man on whom you see the Spirit come down and remain is he who will baptise with the Holy Spirit.' In other words, John is reminding us that this understanding of Jesus as the sacrifice for the sins of the world is something we can only understand if the Holy Spirit unveils the truth to us. And what does the Holy Spirit tells us about Jesus?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32절에서 확인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길,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께서 이 진실을 우리에게 밝혀 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First, He tells u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know about Jesus Christ was that He was God's appointed sacrifice for our sin. Yes, he was an amazing teacher who had unique authority. People literally hung on all his words. They marvelled at the gracious words that proceed from his mouth. They also knew him to be a good man and an example of all that was true and right. But even more than an example, we must have a Saviour. Once we grasp the truth that Christ has come both to bear and to take away our sin we begin to see why Jesus is so important to us.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놀라운 선생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의 모든 말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선한자이며 참되며 옳은 것의 모범이 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반듯이 구세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왜 이토록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His death is vital to our lives. The heaviest burden that any man or woman can bear is the weight of sin's guilt and a defiled conscience. The burden of unforgiven sin is crushing and tortures us as long as we live. But here we learn that when the terrible burden of sin was laid on Jesus he bore it all. Yes, our sin was borne by Jesus - the whole crushing weight of it. As



the apostle, Peter said: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own body on the tree.'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삶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짊어지게 되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로 인한 죄책감과, 더럽혀진 양심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의 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뭉개며 고문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끔찍한 죄의 무게가 그리스도에게 전가 됐으며, 그가 모두 짊어 지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뭉개는 그 큰 죄의 무게를 그리스도께서 모두 짊어지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듯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벧전 2:24)

People can say what they like about it, but John the Baptist and all the apostles remind us that the sin of the world was laid upon Christ, and he bore it and took it away. Sin can be forgiven, for Jesus is the lamb of God who takes our sin away. And that means we don't have to bear it ourselves. As Isaiah says: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If you are a person this morning who is seeking relief, then turn to Christ as God's appointed sacrifice. There is no limit to the value of his great sacrifice. Further, there is no other sin-bearer, no other atonement and no other satisfaction that you can find for your soul. What you cannot bear, He can and will. You just need to come with a humble and penitent heart and ask him to do it.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과 모든 사도들은,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께 놓였고, 짊어 지셨으며,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에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지 않아도 됨을 의미 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듯,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에 구원을 찾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의 위대한 희생의 가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 질 자가 없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분은 없습니다. 그는 하실 수 있고, 또한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에게 겸손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econd, I would like you to notice that not only does Jesus bear our sins but He actually takes them away. John the Baptist does not speak here in the past tense but in the present. He says Jesus 'takes' our sins away.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다는 사실에 주목 하셨으면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길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가 아닌 '가져가신다' 라고 말합니다.

Although his sacrifice was only offered once on Calvary, it nevertheless has an everlasting effect. Although it took place two thousand years ago, his sacrifice continues to cleanse those who have already been washed by it. We have a Saviour who is able to save us constantly and to the uttermost by taking away our sin. His blood that flowed so freely on the cross, still retains its cleansing power for the sins we continue to commit. Just remember this: Christ has

by one sacrifice taken away sin completely and that sacrifice remains effectual forever.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그의 희생은 갈보리에서 한번만 바쳐졌을 뿐이지만, 그 효력은 지속적인, 영원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천년 전에 일어 난 일이라도, 그의 희생은 이미 그의 피로 씻겨 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자유롭게 흘러나는 그의 피는, 계속해서 짓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져가셨고, 그 희생의 유효성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So what must you and I do? I want to say two things:

First, if you are a person who doesn't know Christ as the Lamb of God, ask God to help you see it. As John reminds us, this is a gift that comes to us from above through the Holy Spirit. Remember, even John the Baptist had not had this revelation at an earlier stage in his life, but he gained it by God's grace. If you don't have it yourself, then ask God to give you that insight through the Holy Spirit.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과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이러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 하십시오. 요한을 통해 보듯이, 이것은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세례요한 또한 그의 삶의 초반에는 이러한 계시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이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 하십시오.

And finally, we need to remember to look to Christ as the source of all our hope and inspiration. And why? Not simply because he is a great exemplar, or leader, or teacher - although he is all those things. But chiefly, we must look to him a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Once we understand our true nature in God's sight, it is only the knowledge of Christ as the 'lamb of God' that will bring us lasting relief and give us truly thankful hearts.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희망과 영감의 원천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는 단순히 그가 훌륭한 모범이 되시거나, 지도자 또는 선생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우리의 훌륭한 모범이시며 지도자며 선생이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죄인임을)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아는 이해만이, 영원한 안위와 참된 감사의 마음을 안겨줄 것입니다.

- 끝 -